

南部軍시인이 겪은 '수용소군도'의 비극

「빨치산 철창수첩」 펴낸 김영씨

“다시는 나같이 비극적인 삶은 없어야 된다”고 절규하는 이가 많은 땅, 그리고 봄벌 내리고 진달래 지는 5, 6월이면 그 어느 때보다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의 흐느낌이 산 자를 서럽게 울리는 땅. 이러한 정의가 나약한 감상주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 못하는 것은 이를 증명할, 두 눈 부릅뜬 지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뭍은 상처를 다시 헤집어내는 것은 더없이 쓰리고 아픈 일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또다른 비극을 방지하는 일이자 살아남은 자의 책무”라고 말하며 역사의 후미진 곳에서 두리번거리며 걸어나오는 한 증언자가 있다.

이태의 수기 「남부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빨치산 문학청년으로 소개되었던 김영(62·본명 金雄)씨가 바로 그 사람으로, 그의 손에는 최근에 펴낸 「남부군」 이후의 빨치산들의 감방 이야기를 담은 「빨치산 철창수첩」(흔겨레)이 들려져 있었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2만여명의 빨치산 포로와 산간지역주민들이 잡혀들어가, 수천명의 환자와 병사자를 냈으며, 그 중 1만여명이 넘는 포로들이 단식제의 허술한 재판을 받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비극의 역사가 그대로 땅과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이책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50년9월 입산,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를 만난 곳은 영등포구 신길동 공장과 주택이 몰려있는 도로변이었는데, 160cm 정도의 작은 키에 몹시 마른 모습이었다. 자신의 말대로 보급물자와 쌀 3말, 탄환 120발, M1총을 메고 산을 오르던 빨치산의 흔적은 그의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었는데, 다만 따라가기 힘들만큼 날렵한 발걸음과 분명한 말, 기억력 그리고 세상살아가는 일에 민감한 관심 등이 그의 전력을 더듬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었다. 어두운 곳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폐색전 때문에 차를 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는데, 늙어서이기도 하지만 감옥에서 얻은 병 때문이라 했다.

김씨는 1950년, 연희대학 국문과에 다니다 휴학하고 고향 순창에 내려와 있었는데, 9월28일 인민군이 대패한 후 미군들이 순창땅으로 들어오던 날 밤 군노동당부 앞에 모인 좌익과 그 협력자, 산간지역주민 등 300여명 속에



끼어 산에 올랐다 한다. 그때를 회고하는 그는 “대개의 사람들이 특정이념을 가진 무슨 주의자도 사상가도 아니었고 사회주의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군이 말하자면 신파사회주의자쯤이었다”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입산동기는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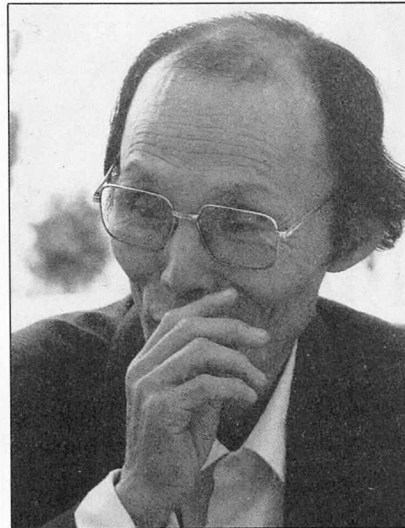
그로부터 1년6개월여가 지난 52년 3월6일 지리산 마천면 백목골 골짜기에서 4명의 동지들과 함께 꼬박 나흘을 굶은 채 눈을 끓여먹고 있다가 토벌대에 붙잡히게 된다.

극단적인 굶주림의 감방생활

김씨가 이번에 펴낸 책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다. 국방경비법 32조 이적죄로 광주수용소 대전형무소 마산형무소를 거치며, 12년9개월 동안 보고 듣고 겪은 “잊어버리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악몽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글에 나타난 포로수용소는 5척담에 외곽을 3중의 철조망으로 둘러치고 감시등과 감시대가 곳곳에서 포로들을 살핀다. 그 안에서 포로들은 제네바협정에 의거한 ‘정규군의 대우’가 아니라 ‘생포된 공비’로 취급받으며 계획적인 것이든 부정부패에 의한 것이든 살인적인 굶주림에 시달린다. 산에서는 ‘실컷 잠이나 자봤으면 죽어도 좋다’던 소망이 ‘밥이나 배불리 먹으면 죽어도 좋다’로 뒤바뀌고 ‘동물’로 사육되는 속에서 人性은 말살당한다.

다리를 제대로 뻗기도 힘든 좁은 감방에서는 이질, 괴혈병 등 온갖 질병이 들고 하루에도 2, 3구의 시체가 들것에 실려나간다. 제대로의 영양공급은커녕 항상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김영씨

포로들은 잡역을 나가면 뱀, 개구리 심지어 쥐, 거미, 굼벵이까지 서로 삼키려 싸움을 한다. 돈과 뺨에 의해 형은 제멋대로 감해지고 포로와 포로 사이에도 밀고자가 생기는 등 인간성 말살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는 좌파예술가에 의한 미학강의도, 격렬한 정치토론과 좌·우의 사상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책에서 김씨는 다음 세가지지를 크게 문제 삼고자 했다 한다. 반강제적으로 전향서에 도장을 찍게 한 전향문제와 재소자들의 처우문제, 그리고 식생활·성생활의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는 그는 사형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고, 전향서에 도장을 찍기까지의 우여곡절을 거쳐 12년9개월만인 지난 64년 12월 서른여섯의 나이에 결핵 경증의 몸을 안고 ‘3공화국 수립기념일’ 특사로 마산교도소에서 가출옥했다. 감옥 안에서 3·15, 4·19, 5·16의 포성을 듣고 바뀐 세상으로 나온 후, 불과 작년까지 사회안전법에 묶여 있어 고향친구조차 곁에 오기를 꺼리는 등 운신이 자유롭지 못했다 한다.

“출소후 고향 순창에서 고등학교 영어강사를 잠깐했었는데, 전력이 공개돼 쫓겨났지요. 이후론 12년간을 농사를 지었는데 공상적 사회주의를 꿈꾸며 ‘푸른농장’을 가꿀 계획이었으나 현실을 너무 몰라 밭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어요.”

이후 그는 무일푼으로 부인과 1남3녀를 이끌고 상경한다. 리어카를 끌기 시작, 일당 1500원벌이 고물장사에서부터 야채장사, 과일

장사, 풀빵장사까지 밑바닥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이처럼 ‘절친’ 생활 속에서도 산에서, 이후 감방에서도 계속 다져온 필력으로 지난 65년 자신의 과거이야기를 담은 글 「벽과 인간」으로 신동아 논픽션공모에 당선한 이래 88년에 「창작과 비평」에 「한줌의 흙」의 5편의 시로 등단, 첫시집 「깃발없이 가자」(청맥)를 그해에 묶음으로써 빨치산 출신 시인이라 이름을 얻기도 했다.

이 책이 소개돼, 마치 자신이 죽은줄 알았던 이태씨를 「남부군」을 통해 37년만에 만났듯, 감방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과 연락이 닿기를 기대한다.

“「남부군」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쓸 사람은 이태씨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 집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했으나 거절,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이우태(이태의 본명)란 이름의 6개 전화번호를 다 돌린 다음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지요. 바로 그날밤 곧바로 만났어요...”

빨치산에 관한 기존의 글들을, 극좌로만 보는 반공일변도의 글들과 「태백산맥」 등과 같이 관념적으로 빨치산을 미화, 영웅주의적 견지에서 보는 것, 그리고 「남부군」이나 자신의 글과 같이 사실적 기록에 충실한 것 등으로 3분하는 그는 앞으로 “좌·우이테올로기의 대립 속에 이름없이 스러져간 영혼들을 위해 장편소설을 쓰고 싶다”고 계획을 말한다. 영웅주의를 배격하고 그 현장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의 모습, 영웅도 배반자도 비겁자도 있는 총체적 모습을 리얼리즘에 충실하여 그리고 싶어한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대생각도 중간생각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도그마티즘에 빠집니다. 민주주의를 원하면 여러 생각을 다 모아야 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상이나 체제에 앞서 ‘인간’이 우선되어야겠지요.”

자신의 이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소시민적 화해주의니 기회주의니 비난할지 몰라도 그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나만이 정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링컨의 말을 빌려서 인민을 ‘위한’ 것에 빠져 인민에 ‘의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부단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말끝을 맺었다.